

한국음악프로젝트 본선 연기

당초 9월 16일에서 10월 30일로 무관중 온라인 진행... 창작곡악 10곡 등 선보여
대상팀에 상금 1500만원 수여... 모든 수상곡, 국내·외 주요 음원사이트 통해 유통

‘제14회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다음달 16일에서 10월30일 오후 7시30분으로 연기,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악방송은 “본선 경연대회를 최근 점차 엄중해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10월30일에 연기 개최된다. 출연진과 스태프,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시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신영일 아나운서와 박은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본선 경연대회에서는 1, 2차 예선을 통해 선발된 10팀의 창작곡과 전년도 대상수상자 ‘경로이탈’의 축하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술감독을 맡은 양승환은 “이번에는 더욱 더 다양한 장르의 10팀이 본선에 진출했고, 각 팀의 개성들도 굉장히 강하다.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본선팀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선 무대에서 첫 공개되는 창작곡악 10곡은 그간 양승환 예술감독을 필두로 유지숙 명창,

소리꾼 이희문, 권송희, ‘잡비나이’의 이일우, ‘신박서클’의 서영도 등 여러 음악 분야에 걸친 멘토의 멘토링을 통해 음악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췄다. ‘은새미로’는 ‘양청도드리’ 선율을 모티브로 자연의 푸르고 맑은 소리와 젊음의 이미지를 결합시켜 ‘청청도드리靑靑’라는 곡을 연주한다. ‘심풀’은 인생의 불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막막하고 힘든 청춘의 시절을 후회 없이 즐기자는 의미의 ‘상여가 싶은 청춘’을 노래한다. ‘속속곳’은 끝없이 부유하는 수증생물 플라크톤에서 영감을 얻어 길을 찾고 있는 청년세대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어딘가 불안하지만 먼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청춘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비트를 통해 표현할 여성 타악 앙상블 ‘groovek’의 ‘Run, Ran, Run’, 음악제작소WeMu의 ‘어-허-굿짜’와 ‘청산별곡’의 한 구절을 차용해 힘든 시기를 극복할 마법의 주문을 외는 ‘천군만마’의 ‘알라알라성’은 진한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재치 있는 가사로 흥겹고 신나는 무대를 만들어줄 ‘모꼬지’의 ‘이관사관’, 민요 ‘쾌지나 칭칭나네’에 2020년 감성을 듬뿍 담아 현대판 유희요를 흥행시킬 ‘bob’의 ‘쾌지나 칭칭(ching ching)나네’, 비로소 트로트와 국악의 만남을 성사시킨 ‘FUN소리꾼’의 ‘눈치코치’도 관객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소리꾼 5명이 작곡가와 만나 ‘아랑’에 얽힌 설화를 재해석한 ‘소리앙상블 00공’의 ‘아랑가’ 무대는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 무엇인지 보여줄 예정이다. 대상 수상 팀에게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1500만원이 수여된다. 국악방송 TV·라디오, 공연출연 등 다양한 후속지원의 혜택도 받게 된다. 대상팀을 포함한 모든 수상곡은 국내·외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유통된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한다. 국악방송과 라디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뉴시스

▶ 신간도서

문화,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기본’

김정옥 ‘문화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는가’

문화,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문화는 인간 집단의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생활 면면도 모두 어떠한 문화에 속해 있다. 먹고, 입고, 자는 부분을 넘어 취미 등 즐기는 분야까지 문화와 연결된다. 문화평론가 김정옥은 신간 ‘문화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는가’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현대인들이 겪는 우울감과 불안감, 상실감, 그리고 고독감에 대해 살핀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나 책 등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감정들이 만들어지는 원인과 해결하는 방안들을 모색한다. 저자는 “문화가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즉 ‘공감’하는데 기본이 된다고 말한다. 그는 “타인의 생각에 대한 생각을 읽고 그것에 대해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공감은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할 때 이뤄지는데, 그 시작은 다름 아닌 문화”라고 말한다. 문화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혹은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책에는 ▲연애의 목적 ▲너의 이름은 ▲더 리터 ▲용의자X 등 영화와 ▲플 리퍼의 ‘시간과 이야기’ ▲한병철의 ‘시간의 향기’ ▲카



를로 로벨리의 ‘모든 순간의 물리학’ ▲지그문트 바우만의 ‘새로운 빈곤’ 등의 책 이야기가 등장한다. 기존 저작들과 다른 점은 단순히 예로 등장하는 작품들 그 자체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자는 영화와 책을 통해 ▲우울감을 느낄 때 현대 사회가 만든 환경에 의한 감정 ▲불안감을 느낄 때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렸을 때의 감정 ▲상실감을 느낄 때 죽음과 고통에 대한 감정 ▲고독감을 느낄 때 성찰에서 오는 감정 등을 설명한다. 저자는 문화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이다. 경희사이버대학교대학원 겸임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문화 공간 ‘달까밭’에서 10년 넘게 독서모임을 운영 중이기도 하다. 책은 문화심리사회학을 전공한 그가 잡지 및 다양한 매체에 기고한 글들과 달까밭이 독서모임에서 다뤘던 주제들을 바탕으로 엮었다. 독자는 스스로 느끼고 있는 감정 상태에 따라 저자의 테라피를 따라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뉴시스

남원 ‘제2회 청소년진로 아트캠프’ 온라인으로

시립김병중미술관,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
특별강연·전시 연계 프로그램 구성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열린 제1회 아트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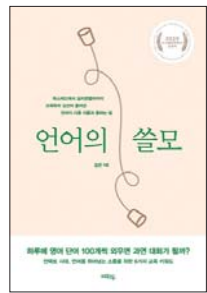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이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주말에 제2회 청소년진로 아트캠프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아트캠프는 초등부 33명, 중등부 22명 등 총55명을 선발해 참가비 없이 진행된다. 서울대와 함께하는 예술감각, 과학기술, 인문학적 사고 등 융복합 창의적 체험활동 등 기회의 진로탐색과 인재양성의 예술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트캠프는 특별강연과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강연에서는 정음시립미술관 이흥재관장의 ‘김병중 화환산수와 남원이야기’ 및 역사동화 작가 김양오의 ‘도자기에 핀 눈물 꽃’으로 조선도공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히, 미술관측은 이번 캠프에서 전시와 연계해 소빈 작가의 ‘미술놀이’, 서울대학교가 진행하는 ‘창의영재미술’ 실기 창작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서울대 미술대학과, 홍익대 예술학과, 보존복원 전문가 김미정 교수와 함께하는 활동과 미술계에 떠오르고 있는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미술 실기, 토론, 글쓰기 등 체험 프로그램 위주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오는 9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63-620-566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미술관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로 단절된 생활 속에서 보람차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 올해는 온라인으로 아트캠프를 마련했다”며, 청소년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궁극적 목적은 ‘소통’

김선 ‘언어의 쓸모’

언어의 궁극적 목적은 소통이다. 소통은 공동체 혹은 조직이라는 유기체 속에서 사람들 간 상호 교감을 촉진시킨다. 언어가 일방적이고 문자적인 수준의 이해라면 소통은 쌍방향적이고 감성과 문화적인 요소를 강조한다. 앞으로의 시대는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학자인 저자 김선은 ‘언어의 쓸모’에서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며 꿈을 이루기 바라는 마음으로 언어를 넘어서는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6가지 교육 키워드를 제시한다. 바로 공감 능력, 인문학적 소양, 상상력, 열린 자세, 범세계적 경험 그리고 문해 능력이다. 영국은 학교교육은 물론 가정교육에서도 인문학을 강조하는 데 이는 소통의 기본인 예절과 상대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범세계적인 경험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적 효과를 지닌다. 타인에 대한 열린 자세는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킨다. 문해 능력은 인공 지능도 따라올 수 없는 인간이 지닌 가장 고차원적인 역량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소통 능력



이야 말로 학령기 아이들에게 해야 하는 교육의 기초이자 핵심이다. 저자는 책 속에 옥스퍼드대만의 특별한 토론 수업인 튜토리얼, 톨스토이 가문의 가정교육, 미국 실리컨밸리 엘리트들의 창조적 파괴, 독일의 방과 후 특별활동, 민사고의 숙달 훈련,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학생들과 한국에서 진행한 영어 캠프, 미국 외교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한 경험들을 생생하게 그린다. 또한 그 경험을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레프 비고츠키의 인지발달이론, 로버트 스타인버그의 실용적 지능 이론을 비롯해 메타인지 등 다양한 교육학 이론을 토대로 고찰한다. 240쪽, 해화동, 1만4000원. /뉴시스

김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